

혈액투석환자의 장기 성적: 단일기관연구

계명대학교 대학원 내과학교실¹,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신장연구소²

박지혜¹, 황은아², 박성배²

Long-term Prognosis in Hemodialysis Patient: Single Center Experience

Jihye Park¹, Eunah Hwang², Sungbae Park²

Keimy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¹

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, Kidney Institute²

배경: 생체적합투석막의 개발, 초순수투석액의 도입 및 혈액투석여과와 같은 혈액투석방법의 발전으로인해 혈액투석환자의 장기 생존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 대한신장학회에서는 등록사업을 통해 투석환자의 생존율을 보고하고 있다. 본 연구에서는 단일 기관에서 혈액투석치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 특성 및 생존율 등을 분석하였다.

방법: 1979년부터 2004년까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유지혈액투석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역학적 특성 및 생존율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.

결과: 연구기간 동안 총 736명(남자 457명, 여자 279명)의 환자가 유지혈액투석치료를 받았다. 이들 환자의 평균 연령은 42.3±14.9세(최소 12.1세, 최고 85.6세), 평균 투석기간은 116.7±97.1개월(최단 3개월, 최장 390개월)이었다. 시기에 따른 투석개시 환자수는 1979-1985년 55명, 1985-1990년 219명, 1991-1995년 292명, 1996-2000년 107명, 2001-2004년 64명이었다. 각 시기에 따라 투석 개시 시 평균 연령은 각각 35.9세, 39.2세, 43.6세, 45.8세, 46.1세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. 추적 기간 동안 117명(15.9%)의 환자가 복막투석치료로 전환하였고, 297명(40.4%)의 환자가 신장이식치료를 받았으며 341명의 환자가 사망하였다. 전체 환자의 평균 생존율은 5년, 10년 및 20년 생존율이 각각 72%, 56%, 44%였다. 1979-1985년 사이 혈액투석을 개시한 환자의 5년 및 10년 생존율은 96.2%, 69.3%였으며, 1985-1990년 사이 환자의 5년, 10년 생존율은 70.2%, 54.4%, 1991-1995년 사이 환자의 5년, 10년 생존율은 70.4%, 53.8%, 1996-2000년 사이 환자의 5년, 10년 생존율은 64.0%, 54.0%, 2001-2004년 사이 환자의 5년, 10년 생존율은 69.5%, 65.1%였다.

결론: 혈액투석을 받은 시기에 따른 5년 및 10년 환자 생존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 그러나 2000년 이후 혈액투석치료를 개시한 환자의 10년 생존율은 이전에 혈액투석치료를 개시한 환자에 비해 향상된 경향을 보였다.

Key Words: 혈액투석, 장기생존, 예후

Hemodialysis, Long-term, Prognosis